

다산포럼

김태희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다산의 '탕론'을 읽으며 드는 느낌이다. 다산은 '위로부터의 정치' 시대에 살면서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생각했다. 마을사람들이 추대하여 마을의 대표를 뽑고, 마을 대표들이 추대하여 고을의 대표를 뽑고, 고을 대표들이 추대하여 나라의 대표를 뽑는 식이다. 그래서 대표가 구실을 못하면 아랫사람들이 의논하여 대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풀어보면, 시민의 이기적 활동을 계발하고 공의 대변적 '직접 행동'을 권장한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평화적인 직접 행동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의의가 있다. 하물며 민주주

다산의 '아래로부터의 정치'

의 결손 현상이 농후한 경우에만... 위임과 책임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직접 행동에 대해 제도권에 팔기라고만 설득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제도는 공동체에 필요한 질서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안정성과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도는 많은 사람이 다녀서 생겨거나 많이 다니도록 잘 만든 길과 같다. 사정이 바뀌면 길도 바뀐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변화나 대체적 제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치는 말의 세계이다. 말의 세계는 정

보기학 혁명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어느 경제학과의 '조직 비용', '거래 비용', '관계적 계약'이라는 아이디어에 비취면, 정치시스템의 비용구조가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이에 따라 정치권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측컨대, 인터넷 공간에서 조직비용이 현저히 낮은 조그만 정치커뮤니티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수평적으로 소통과 연대를 도모하고 정치적 사안에 따라 결합하고 신뢰의 축적에 따라 지속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구현되는 말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열 수밖에 없다. 꼭 정치 모임만은 아닌 다양한 커뮤니티가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공적 문제에 관한 의견과 해결책을 말할 것이다. 이 가운데 자칭 정치 전문가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더 나은 아마추어 정치인도 양산될 것이고, 공공성을 갖춘 리더십과 네트워크가 등장하여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리더십과 운영방식이 종전과 다르고, 의제설정과 정책생산 면에서 기존 정당보다 우월할 것이다.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정당은 주류인론과 비슷

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도 그들은 있기 마련이다. 선정주의와 언어폭력과 조작에다, 새로운 차별과 말의 홍수 현상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세력은 말을 독점하려 한다는 점이다. 결국 자기 눈과 귀를 가리는 부질없는 짓일 수도 없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치세력은 방송장악과 인터넷 통제를 시도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IT 혁명에 의한 말의 세계는 평범한 개인들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며, 그런 만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시스템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동의와 협력이다. 대중의 동의와 협력은 공적인 문제의 해결능력과 신뢰구축이 관건일 것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했기 때문에, 다산은 '위로부터의 정치' 세계에 살면서 과거의 타협의 얘기를 빌어 미래의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말한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를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장자의 말을 인용하여 논설의 끝을 맺었다. "여를 한찰만 사는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다산연구소 기획실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AI 피해능가 실질적 지원책 내놓아야

전남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능가들이 비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8일 첫 발생 이후 2개월여 동안 전남을 휩쓸었던 AI 사태가 종료됐으나 피해농가들은 현실성 없는 정부의 지원 등으로 아직껏 생계 유지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성수기를 맞아 닭·오리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AI 사태 당시 사육두수를 줄인데다 사료값 등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채 상환 압력 등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료값이 79%까지 오르는 등 생산비가 급등해 빛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매와 긴급용자조치 등 현실성 없는 정부의 지원대책도 피해농가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피해 농가들은 산란계의 살처분 보상이가 2만5천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절반도 안된 1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사료값 등 천정부지

로 치솟는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이다.

자금지원책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생계안전자금은 지원 대상이 AI 발생지점으로부터 3km 이내로 한정돼 전남의 경우 겨우 18개 농가만 혜택을 받았다. 경영안전자금 역시 가구당 수 백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농가들은 사육을 포기하는 가 하면 사체까지 끌어쓰고 있다.

AI는 준 자연재해라 할 수 있다. 감염원이나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육농가들은 AI에 속수무책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축산농들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AI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고 사료값 급등 등 이중, 삼중고 속에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AI 피해농가와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기대 못미친 '소폭' 개각 실망스럽다

청와대가 어제 최근의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3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내각이 지난달 10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지 28일만이다. 대폭 개각을 기대했던 여론을 감안하면 실망스럽다.

허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일부 장관과 국비 모교 지원 논란을 빚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민심이란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정 혼란이 쇠고기 맞판은 아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경제는 비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국정은 표류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상황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소한 고관을

정체를 유지해 불가 폭등 등 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경제팀만은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이번 개각을 "국민 기만쇼이자 면피용 개각"이라고 원색 비난하며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높이에 맞춰 개각의 폭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가 지난 주말을 계기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기미를 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 내각마저 대폭 바꾸면 또 다른 국정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장관 3명을 바꾼 조치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각의 후유증이 걱정이다. 정부가 서둘러 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일이다. 대폭 개각 여론이 비등한 마당에 정국이 장기간 표류하고 민심이 더 싸늘해질까 우려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손흥식



세상의 이치는 하나같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 늙고 병들어 사망에 이른다. 재물로 말하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눈발에서 재배하던 간에 하나의 제품,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씨앗은 새봄에 태어난다. 요즘에 광우병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계속되면서 촛불에 대한 이미지가 자주 오버랩 된다.

시대를 보더라도 통치권자가 강한 리더십으로 국민을 태평성대의 융성기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덕치(德治)와 선정(宣政)이 필요하다. 이 근본에는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데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름하여 난세(亂世)라고들 말한다. 소용돌이치는 유가파동 등 세계정세가 그렇다. 세계의 흐름은 늘 새로운 위기를 조작해 낸다. 이러한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기회가 있다.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적 힘의 결집에 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감자의 힘에 의해서 소용돌이치는 오늘에 내부적 에너지의

촛불문화의 상생적 소통을 기대한다

시기에 촛불의 염원은 누구에게나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촛불이 던진 희망의 메시지는 어느 일반적인 희생이 아닌 생방 간의 희생을 말한다.

소모전은 더 이상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과 정부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소통의 통로를 넓혀야만 한다. 촛불집회도 대화의 요구이다. 이러한 대화를 바라는 소망과 희망적 요구에 방패로 반응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시대를 거슬러 후퇴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 사이에 불신과 반목과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상처만을 남길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가 60억 명을 넘어 70억 명을 향해 질주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고품질의 불어치는 난파선의 인의장막 속에서 한치 앞을 못내다보고 균형적 힘을 발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미야로 전락해버리는 생존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이다. 이러한 때에 국민과 정부가 촛불문화의 상생적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화합해 나가는 세상을 염원해 본다. (수필가)

야생동물 이상 증식엔 사냥 허용해 적정선 유지해야

자연보호운동이 성공을 거두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도 적었다. 또 도시에도 때때로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이 출현한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보호의 영향도 있었지만 지구 온난화에 의한 특정 동·식물의 이상 증식과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 우려도 있다.

고라니의 사망률이 낮아졌다. 또 먹이사슬이 붕괴돼 그 개체가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농작물 피해와 주민들을 위협하는 멧돼지는 공포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야생동물의 이상 증식은 사람에게도 전염병을 옮기는 인수 공통 전염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환경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고라니의 전국적 서식밀도가 무려 3~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고라니의 급증은 그 상위포식자인 삵과 늑대의 사라진 점과 지구 온난화를 꼽았다. 즉,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겨울 폭설이 줄었고 그에 따른

독일에서는 해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사해 적정선을 넘은 동물에 대해서는 전문 사냥꾼을 지정, 포획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야생동물의 이상 증식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김일락·보성군 문덕면



수리부엉이와 큰 소쩍새



어느 가내 공장에서 전화가 왔다. '수리부엉이'가 공장 안으로 날아와 잡았으니 동물원에서 와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가서 확인했더니 이 새는 수리부엉이이고는 한 참 거리가 먼 큰 소쩍새였다. 사진 상으로 보면 모양이 비슷해 잘 알 수 없지만 직접 보면 체구에서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사진으로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으니 일반 사람들은 누구나 흔히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데 잘 모르면서 당당하게 분명 수리부엉이라고 우기는 이들도 있다. 그 자신감은 어쩌면 허풍이 짙은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도 싶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양호한 편이다. 호기심에 며칠씩 키워보다가 밥도 안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 굶어 죽게 생기면 그때야 연락하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면 가능하면 가서 확인하고 탈진되었으면 동물원에 데려와 적당한 처치를 해서 기력을 회복시킨 뒤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이들 동안 고기를 쥐도 안 먹었다고 해서 동물원에 데려와 소고기를 강제로 먹였더니 그 후로는 잘 받아먹었다. 그리고 3일 후에 넓은 숲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큰 소쩍새와 자연이 해결할 문제다. ◇최종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가정폭력 아이엔 평생 상처... 발견땀 꼭 신고를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학대 때문에 원생 한명이 사회복지시설로 옮겨졌다.

현행 법에는 어린이 집 관계자와 의사 등은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의 일이 아니고, 말짱이 나는 것이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이는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다녔지만 유치원에서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한다. 그 아이는 유치원에서도 말이 없고, 체육 활동을 할때 옷 벗기를 한사코 거부했다고 한다. 혹시나 해서 담임교사가 확인해 봤더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놀람게도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집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아이가 얼마나 맞았는지 일곱 살 짜리 아이의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고 몸 이곳 저곳에 상처투성이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자녀를 때리거나 학대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평생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 것이다. 아동학대를 그저 남의 집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소중한 어린이들이 폭력 속에서 방치되는 것을 막는 사회적 풍토가 정착되길 희망한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흥동

無等鼓

헨리 포드가 1903년에 세운 포드사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에 설립된 자동차회사 제너럴 모터스(GM)다. 윌리엄 크래프터가 1908년에 문을 열었으니 가을해로 딱 100년이 된다.

지분을 모두 인수, 더랜트를 쫓아냈고 피에르 듀퐁이 GM의 새 회장으로 등극했다. GM은 10년 뒤인 1931년 포드사를 밀어내고 업계 정상에 올랐고, 지금껏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로 군림하고 있다.

당시 미국대 가장 큰 화학회사로 인조가죽을 생산하는 듀퐁은 GM의 성장을 예상했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다. 자동차회사가 인조가죽의 미래 수요자라고 진단하며 군침을 흘렸다. 그리고 결국 1919년 GM의 지분 20% 이상을 매집했다. 이후 연방준비은행의 통화긴축으로 GM의 자동차는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여가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파산경계에 이르렀다.

반박했지만 고유가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BMW'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값싼 기름 팔광쓰며 대형차 몰던 미국인들이 'B(Bicycle-Bus) M(Metro) W(Walk)족'으로 전락



GM과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짠돌이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리가마다 자전거가 부족 늘었다는데, 육상교통 수단이었다던 마차를 지구상에 서 퇴출시킨 GM이 구시대 유물로 취급 당하는 자전거에 자리를 내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듀퐁과 J. P. 모건은 1920년 나머지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대우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정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